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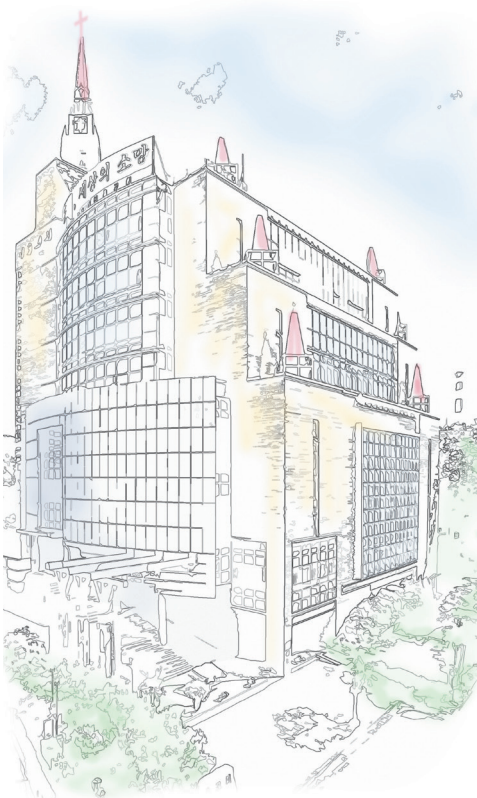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광야에서 들린 뱀 I

(요 3:14-15)

이중윤 원로목사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기독교는 행위의 구원이 아닌 은혜의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 철학은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 사상이 기독교의 진리라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자유로이 예배를 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과응보 사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왔는데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다 죽어가는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최초로 이 부분에서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1. 죽음의 뱀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는 도중에 홍해 근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호르산에서 에돔 국경까지의 지역은 험하고 험한 망망대해와 같은 사막입니다. 돌부리밖에 없는 그곳에 뱀은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민 21:4).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민 21:7).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한 것이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을 뿐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므로 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약속의 종교

다급해진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너희 회중 가운데 높이 세워 놓으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계약을 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계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그것이 재계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약속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면 사람 앞에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자기 생명 전부를 바쳐, 자기 인격 전부를 바쳐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께 의존하여 믿어야 합니다. 믿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근심이 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영생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도 주님께 이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내 가슴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주여! 주여! 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음 주 계속)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건 인용되다

이사장인 박노철 목사에게 신임이사 선출 위한
이사회 소집과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으나 계속 이에 응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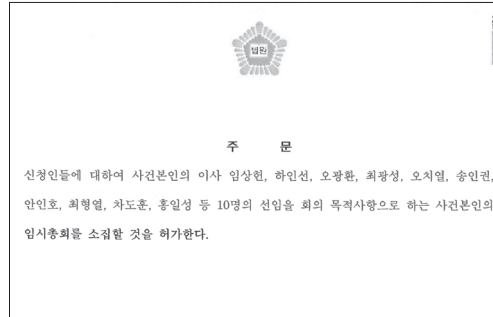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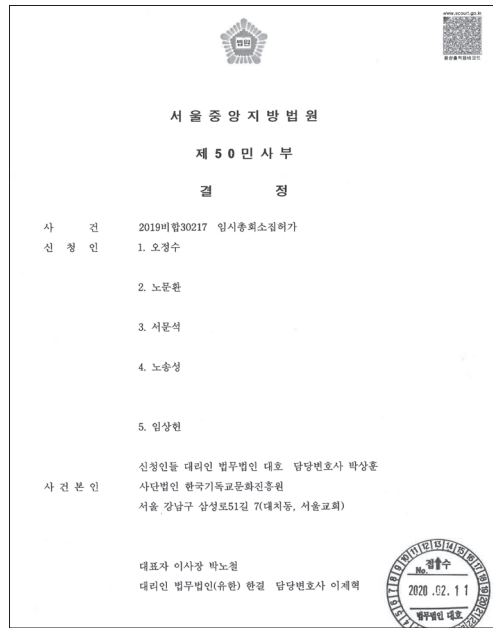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7일(금) 오정수 장로 등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 5명이 신청한 신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건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다.

본 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의 이사는 서울교회 당회에서 먼저 선출하고 그 선출된 이사를 다시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거쳐 정식 선임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박노철 목사를 포함한 기존의 이사 9명 전원의 임기가 이미 2017. 7. 31. 만료되어 서울교회 당회는 지난 2019. 6. 5. 임상한 장로 등 10명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이사장인 박노철 목사에게 이들을 신임이사로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과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박노철 목사가 계속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위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여 준 것이다.

이 재판에서 박노철 목사는 노회에서 파송된 적법한 임시당회장만이 당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직무대행 변호사가 당회를 소집하여 신임이사를 선출하는 결의까지 할 권한도 없으며, 현재 서울교회가 담임목사 문제로 분쟁 중이므로 위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위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이다.

위 법원결정으로 오랫동안 박노철 목사의 횡포로 막혀 있던 문화진흥원의 신임이사 선임문제 해결의 결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동안 노회나 총회가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당회를 소집할 수 없고 그가 인도한 당회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주장이 결코 법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점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인용결정은 송달로써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고 더 이상 불복신청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현 이사들은 오는 2020년 2월 23일(주) 찬양예배 후 위 신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문동진·김은정 박영숙 윤종현 이승래 안홍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2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2월 16일 :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단검사)
- 2월 23일 :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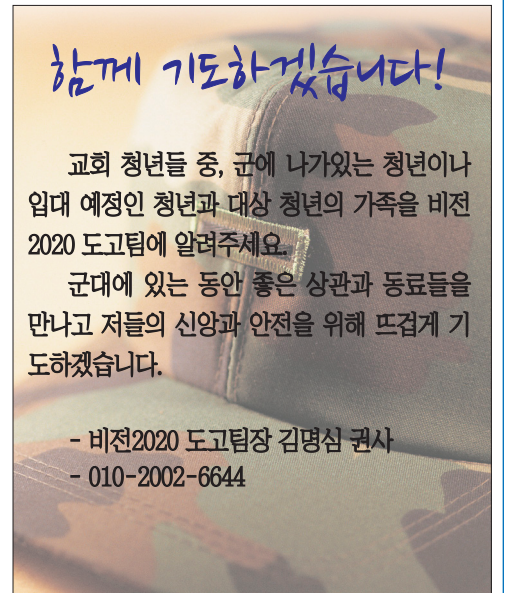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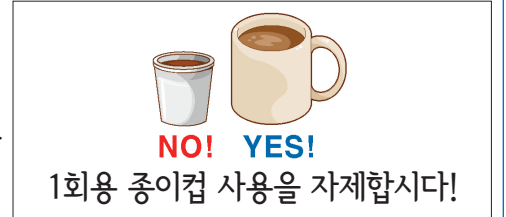
- 상담 시간: 오전 10시-11시
- 상담 예약: 정철웅 집사 010-8993-5558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2월 14일 현재

유성택·권진순(1) 한정원(1) 서상근·김예환(1/2)
전광영·김인숙(1) (다음 주 계속)

한가정한선교사 후원자 2월 14일 현재

유성택·권진순(1) 김정훈(1) 김세호·정신아(1)
노송성·이영옥(1) 전광영·김인숙(1)
(다음 주 계속)



교회 당 내부 소독

▶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매주 토요일 교회 1층 전역을 방역하고 있다. 또한 손 소독제(에탄올 70% 이상 제품)를 교회 출입구와 웨스트민스터홀 입구 등에 비치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 출입 시 꼭 손소독을 하기 바란다.

교회는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방역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코로나19 이렇게 이겨냅시다



김동준 집사 (3교구 내과 전문의)

최근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에서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였습니다.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천명을 넘어가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사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경로는 비말 및 호흡기 분비물과의 접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이 된다면 약 10일 가량(추정)의 잠복기 후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감기 및 폐렴 바이러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증상만으로는 감별이 쉽지 않기에 예방이 중요합니

다. 정부에서도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 씻기!
- 기침할 땐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3가지에 더불어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며, 선별 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사람)에서 떨어지면 죽어 없어집니다. 설령 기침이나 가래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하며, 문고리, 손잡이 등의 환경에서는 수 일 동안 살 가능성이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진행하기에 단순히 환자 이동경로를 통해 감염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병의 중증도도 이전 메르스 감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 치료중인 환자들 또한 질병의 경과가 중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감염증에 대한 과도한 불안 및 선입견은 본인 및 주위 사람들을 더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담담히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이전 메르스 감염증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 사태 또한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선교보고 - 카자흐스탄

황무지 같은 카자흐에도 하나님나라의 부흥이...



미르교회 청년들의 세례식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16)

2020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회 위에 우리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 주시고 속히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지도 선교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1. 교회창립 13주년 감사예배

10월 셋째 주일에 미르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명의 청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 귀한 예물

창립예배 주일에 카자크가정(아슬란가정)에서 집에서 키우던 닭을 4마리 잡아 와서 풍성하게 점심식사를 준비하여 같이 식탁교제를 즐겼습니다.

12월 첫째 주는 이 가정에서 양을 직접 잡아서 반마리를 헌물하여 성도들과 같이 베스파르막(카작전통음식)을 만들어 아주 푸짐하게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 1일 의료봉사 (2019년 9월 25일)

미국한인교회에서 갑자기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1일 의료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내과치료와 눈이 안 좋은 노인분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나누어 주었는데 우리 성도들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과치료를 받고 돋보기 안경을 받아 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사역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4. 성도의 소천

2019년도에 세례를 주었던 발로자(남 러시아, 67세) 형제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황무지 같은 카자흐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카자흐스탄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카자흐에서 이은준 · 강혜정 선교사



미르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및 추수감사절 예배



1일 의료 선교

주 안에서 성도의 즐거운 교제



김정순 집사
(16교구
마리아전도회 서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겨울비가 촉촉히 내린 지난 2월 12일(수) 마리아전도회 회의 첫 모임을 최정숙 집사님 댁에서 가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모이기에 힘쓴 마리아전도회 선배 집사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2020 마리아 임직원들도 매일 월례회와 직장마리아전도회 모임 활성화 등을 위해 기도하며 연간계획을 잡고 첫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마리아 전도회는 잠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 사정을 잘 몰라 돌아오지 못하는 회원들을 찾고 주 안에서 함께 즐거운 교제,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대내외 봉사과 헌신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 돕는 전도회가 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연간계획으로는 3월 보리빵 만들기, 4월 봄

야외예배, 5월 또래별 기도 모임, 6월 성경퀴즈대회, 7월 영화와 함께하는 예수그리스도, 8월 천연염색으로 실크스카프 만들기, 9월 가을야외예배, 10월 수능 기도회, 11월 정기총회, 12월 선물교환 및 송년파티 등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마리아전도회의 계획을 주님께서 인도 하시길 기도합니다.

회장이신 최정숙 집사님이 손수 준비하신 점심을 대접받고 식탁교제를 통해 교회 회복과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집을 개방하시고 손수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1966-1970년생이시면서 마리아전도회를 모르셨던 분이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자녀들의 입시나 여러 어려운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성도 에티켓

약수대신 목례로 인사합니다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합니다

기침등 호흡기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8일 칼빈탄생500주년 기념회 전·임원 모임을 소집한다.
 - 금주의 식사 : 김시환 집사 김정란 권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해물달걀밥, 김치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장하여 주시어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옵소서.
2. 나라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온 세계가 서로 협력하여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2월17일	월	민 5-6		삼상 12-17	
2월18일	화	민 7		삼상 18-23	
2월19일	수	민 8-10		삼상 24-31	
2월20일	목	민 11-13		삼하 1-6	
2월21일	금	민 14-15		삼하 7-13	
2월22일	토	민 16-19		삼하 14-19	
2월23일	주일	민 20-22		삼하 20-24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